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승환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3. 6. 7.(수)

제 목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 불법 촬영 등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(부장검사 김은미)는,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장남 A의 성관계 불법촬영, 마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'23. 5. 31. A의 ① 약 70여건의 불법촬영,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, ② 2회의 미성년자 성매매, ③ 케타민, MDMA(엑스터시) 등 마약류 투약, ④ 약 50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(숙칭 'VIP성매매') 범행을 기소하는 한편
 - ※ A는 '23. 4. 동종 불법촬영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 수형 중
 - A의 비서로, A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B,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C,
 -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로서, A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D, E를 함께 기소함(수형자인 A 추가기소, B, C, E 각 불구속 기소, D 구속 기소)
- 본건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A의 불법촬영 등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하여 송치범행의 입증 뿐만 아니라 추가 불법촬영 및 소지,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성매매, 마약류 투약 등 부유층 자제의 일탈 범행 전모를 밝히고, A 등에게 성매매알선을 한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 D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고 총 5명을 기소하였는바,
 - 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임

1

피고인

- A (남, 40세, 미국 국적), 골프장리조트 이사
 - ※ A는 국내 유력 골프장리조트,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아들로, 2023. 4. 동종 불법촬영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
- B (남, 36세), C(남, 22세), 각 A의 비서
- D (남, 43세), E(여, 26세), 각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

2

공소사실 요지

1. 불법 성관계 동영상 등 촬영 및 소지

- (A) '17. ~ '21.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영상 촬영 및 소지 [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)]
- (A) '13. ~ '16.경까지 촬영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 소지 [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)]

2. 청소년 성매매,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

- (A) '21. 10.경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 [청소년성보호법위반(성매수등)]
- (C) A에게 위 성매매를 알선하여 [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알선등)]
- (A) '20. ~ '21.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[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)]

3. 마약류 투약 범행

- (A, B) '21. 10.경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(엑스터시) 투약 [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]
- (A) '21. 1.경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[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]

4.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

- (D) '19.경 ~ '22.경 대학생,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속칭 'VVIP성매매' 알선영업 [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알선등)]
- (E) '21. 6. ~ '21. 12.경 A 등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성매매알선영업 [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알선등)]

3

수사 경과

- '21. 12. 30. A 불법촬영 범행 구속 기소, 일부 보완수사요구
- '22. 5. ~ 12. 보완수사요구사건 송치, 고소 사건 등 관련 사건 송치
- '23. 1. ~ 5. 압수수색, 계좌추적 및 사건관계인 20여명 조사
- '23. 5. 23. D 구속영장 청구, 5. 30. 구속영장 발부
- '23. 5. 31. A, B, C, E 불구속 기소, D 구속 기소

4

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1.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송치된 혐의 이외 추가 범행 적발

-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전면 보완수사를 통하여 추가 증거 확보하고, 송치된 혐의 이외에 추가 범행을 규명하였음

[압수물 전면 재분석] ▶ 사경 압수된 13개의 전자기기 포렌직 실시하여 총 2TB 상당의 포렌직 자료 복구 분석 ▶ 추가 혐의 관련 전자정보 압수 등

[계좌추적 실시] ▶ A 등 관련자 30여명의 약 40여개 계좌 압수 수색 ▶ 성매매대금 및 마약류 구입자금 등 자금 흐름 확인

[추가 압수수색] ▶ 성매매알선자 D 등 주거지 압수, 관련 증거 확보

[피해자 등 조사] ▶ 새로 확인된 피해자 10여명 및 참고인 등 보완 수사

- 보완수사 결과, A 범행 관련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
① 총 46회의 불법촬영 및 소지 범행, ②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범행,
③ 2회에 걸친 미성년자 성매매 범행, ④ 케타민 투약 범행, ⑤ 21회에 걸친 성매매 범행 등을 추가로 밝혀냈고, D 범행 관련 장기간 'VVIP성매매업소' 운영하여 고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여 직접 구속하였음

2. '재벌가 자제' 등 부유층의 일탈 범죄 전모를 밝힘

- A는 골프장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남으로 건설한 사업가 및 가장으로 행세하였으나, 실제 2013.경부터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오면서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습 불법촬영을 하고, 이를 일종의 '수집품'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하여 둔 사실 확인
-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, 상습 성매매 사실 및 케타민, MDMA 등 향정신성 의약물을 유통 목적으로 국·내외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었음

3.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

-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,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A가 촬영·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
- 불법촬영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, 심리치료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진행

4. 고급 출장형 성매매('VVIP 성매매') 알선 영업 관련자 엄단

- 고급 출장형 성매매 알선업은 별도 영업장소 없이 1:1 광고 및 개별 접촉 방식으로 'VIP' 손님들에게 접근, 성매매 1건당 80만 원 ~ 200만 원의 고액 요금을 받는 영업형태로 속칭 'VVIP 서비스'로 불리며, 업장이 없고 종업원과 업주, 손님들 사이 접촉이 극히 드물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
- 본건의 경우, D의 주거지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종업원, 성매수남 등을 특정, 단기간에 걸쳐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고,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여 환수조치하였음

5. 향후 계획

- 향후에도 '인격 살인 행위'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음. ▣